

1998 봄호

백혈병어린이후원회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어린이 여러분!
건강하세요
OB 베이스 박찬승

- 제6회 백혈병어린이 완치잔치에서 -



[신년사]

IMF한파 속에 봄을 맞으며



후원회 회장 이순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긴 겨울 끝에 새봄이 왔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모두 떨어져 쓸쓸하고 삭막하였던 가지마다 추운 겨울을 견디어 낸 새 눈들이 오뚝하게 벅찬 기쁨과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는 모두를 움츠리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실직하고 매일매일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는 아픈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기만 합니다.

외국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기간동안 4세미만의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보험 일수의 제한 그리고 항암치료제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고 의료보험조합과 과잉진료문제로 다름이 계속되어 의료인들이 충분한 치료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후원회에서는 전화통화로 시작되는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천사백운동'에 동참하시려는 후원자님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같은 이웃이 되어 백혈병어린이를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후원자로 가입케 하면서 자랄 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싶다는 말씀에 밝은 내일의 희망이 보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와 가장 추운 대한이 겹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절제와 노력 그리고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은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봄과 함께 새 정부도 출범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나라 형편이 어렵더라도 이 땅의 어린이들이 질병의 고통을 겪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마당]

텍사스 (Texas)

소아암센터 연수기

나는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Baylor의대부속 텍사스 소아과(Texas Children's Hospital, TCH)내 텍사스 소아암센터(Texas Children's Center, TCCC)에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1년간 연수를 다녀왔다.

여름에는 온도가 4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휴스턴에는 근무자가 5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텍사스 의료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텍사스의대부속병원들과 Baylor의대부속병원이 진료나 연구면에 상호간에 협조하면서 공존하고 있었으며, 미국 전역에서 암센터 중 2위로 랭크되는 앤더슨(M.D.Anderson) 암센터와 텍사스 소아암센터가 속해 있었다. 텍사스 소아암센터는 약 500병상을 갖춘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소아암센터이면서 예산이 든든한 사립병원이라 시설면에서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쾌적하였고, 물리적, 인적면에서 모두 놀랍도록 풍부하였으며, 텍사스 소아암 센터는 저명한 데이비드 포플락 박사(Dr. David Poplack)을 과장으로 모시고 20여명의 교수들과 10여명의 전임의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 운영되고 있었다.

첫 달 7월은 임상관찰을 하기로 한 달로 그 달의 입원병동의 책임교수인 필립 스투버 박사(Dr. philip Steuber)와 한 팀이 되어 매일 입원병동 및 골수이식병동 회진을 돌고, 혈액학 미팅, 종양별 미팅, 전임의 교육용 강의, 실험 세미나 등 하루에 2-3건씩 있는 미팅에 참석하며 진료 스텝들과 친하게 되었는데 여

기서 진료스텝들이란 의사 외에도 소아혈액종양분과 교육을 받고 실제로 의사와 함께 외래 진료도 하는 간호사(Nurses practitioner), 주로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맡는 전문간호사(Nurse specialist),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항암제 주사투약을 해 주는 가정방문 간호사(Home care nurse), 임상약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치료요법 관리사, 검사전 환아를 진정시키는 전문인(Child Life specialist), 경제 상담원들이 포함되며 이들을 맡은 종양/환자별로 회진도 함께 돌고 미팅에도 참석했다. 입원병동의 모든 병실은 1인실 격리병실들이었으며, 병실마다 안팎의 베타딘 세수시설과 간단한 목욕 및 부엌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병동마다 놀이방 및 학교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듯 물적 인적으로 풍부한 만큼 경비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되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열배이상 비싼 진료비/보험료, 합법화되어 있는 많은 현금과 의료보호의 확대에 유지된다고 하였다.



텍사스 소아 암센터 접수 등록처 기다리는 곳

텍사스 소아암센터는 미국 소아암센터들의 양대 공동 연구그룹인 소아종양모임(Pediatric Oncology Group;POG)과 소아암 연구모임(Children's Cancer Study Group;CCG)중 다른 150여개의 소아암센터들과 함께 전자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접했던 CCG의 치료요법과 다른 POG의 치료요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POG와 CCG에 속하는 약 삼백개의 소아암센터들은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에 대해서 각



정혜림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소아과 조교수

그룹 특유의 치료요법 및 종양 성질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고형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하는데, 미국내의 수백개 병원들이 소아암의 병인론을 밝히고 치료성적을 향상시키자는 목표하에 체계적으로 협동적인 연구를 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도 신선한 자극이었지만, POG Center의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된 치료요법에 자연스럽게 수긍하며 임상 연구에 협조하는 환자의 반응 또한 놀라웠다. 또한 의사들은 병원에서 지원한 노트북 컴퓨터로 집에서도 환자의 검사결과나 과거의 외래차트를 검색(분과별 진료 스텝의 ID와 패스워드로만 가능), 전화처방을 내기도 하고, 퇴근후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편리하고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나라 병원전산화 시스템의 가까운 미래를 보는 듯했다.

텍사스 소아암센터 암환자 캠프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물을 넣은 풍선놀이를 하다가 물벼락을 맞은 일,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얼굴에 물감을 칠하고 분장을 한 교수들, 할로윈축제(Halloween festival) 때는 분장을 한 채 진료를 하는 진료스텝들을 보며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며 문화적 차이를 느꼈던 점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8월부터는 외래동 내에 위치한 분자종양학 실험실 중 소아뇌종양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하는 칭로우 박사(Dr. ChingLau)의 실험실에서 신경외과 의사와 해부병리과 의사와의 협조하에 소아뇌종양 수술시 고정되지 않은 신선한 뇌종양 조직을 얻어와 소아 뇌종양 발생에 관하여 암억제 유전자를 찾기 위한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휴스턴을 떠나오며 시작해 놓은 실험들을 모

두 완벽히 끝내고 오기에 1년은 너무나 짧았기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그 동안 친구같이 또 가족같이 정이 들어버린 모든 텍사스 소아암센터 진료스텝들, 분자종양학실험실 동료들과 여러 모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던 교포 선배의사들과 헤어지며 섭섭함이 매우 컸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많은 새로운 경험, 아름다운 추억과 관계를 만들어낸 결코 짧지 않았던 값진 1년이었던 위안이 든다. 텍사스 소아암센터에서 마지막날, 직접 편집한 책을 선물하며 서울에 돌아간 후 실험연구 뿐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앞으로 공동연구를 해보자던 포플렉 박사(Dr. Poplack)의 제안을 하루빨리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해 본다.



암 환자 Camp에서 분장한 교수들과 암 환자들



첫 번째 학을 접으며

나의 딸 가연이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정성으로
긴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처음,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이 암담했던 시간들.
언니-가희의 골수를 이식받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의 시간들.
그리고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눈물만 흘려야 했던 시간들.
시간은 흘러간다.

골수이식을 한지 30일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병과의 싸움에서
굳건하게 잘 버티주고 있는 나의 작은 아가.

세상의 막스함을 가슴 깊이 느낀다.
그 막스함 때문에 이제, 아이의 곁에서 학을 접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학을 접으면서
난 희망을 담는다.

1998. 2. 12.

가연이의 엄마 정세량

* 백가연은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연이가 이웃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거름삼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도울 수 있는 따스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소박한 소망을 말했습니다. 가연이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소아암을 이긴 아이들]

나의 오늘은 어제 죽어 간 자가 갈망했던 미래였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간밤에 내린 비에 젖은 개나리 가지에서 초록빛 환영을 보았다. 가파른 언덕가에 노오란 빛으로 넘칠 봄을 기대하며, 내일을 향해 한말한말 떴고 있는 이규희씨를 만났다.
약속시간보다 십분 정도 늦은 규희씨는 그 별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커피를 사야만 했다. 그를 만난 동국대, 다향관 2층 식당은 밥값이 삼천원 이상이라, 평소 때에는 올 일이 없는 곳이라고 규희씨는 설명한다.

KCLF 규희씨, 몸무게 좀 물어봐도 돼요?

규희 그런 질문도 하나요?! 극비인데요. 왜요? 제몸이 그렇게 부실해 보이나요?

KCLF 저보다도 덜 나갈 것 같아서요?

규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봐도, 왕년에 꽤 잘 나갔었어요. 썩스럽지만, 초등학교 땐 꽤 잘 나갔어요. 6년 내내 2학기마다 반장에, 육상선수로 활동도 했거든요. 특히, 달리기는 전교 1, 2등을 다틀 정도였다고요. 그 땐, 까분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는데...

KCLF 처음 폐암진단을 어떻게 받았나요?

규희 4학년(90년)때 팔목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괜찮은 듯 했는데, 2년 뒤인 92년에 종양이 폐로 전이되면서 폐암으로 진단이 내려졌어요. 폐에 찬 물을 빼고,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2년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KCLF 치료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규희 치료과정중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참을만 했었어요. 그리고 전 항상 "나으면 무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병원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어머니도 제가 알아서

적응을 잘하니까, 제 몸의 변화에 따라 너무 민감하지는 않으셨어요. 가령 항암주사때문에 음식물을 못 먹을 때에도 제가 어느 정도 속이 진정되면, 알아서 먹는다는 것,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잠만 계속 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하도록 놓아두셨어요. 그런데, 집과 병원간의 거리가 어중간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고갈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안산이거든요. 병원에서 집까지는 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 남짓 걸리는데,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전철을 타면 지치기 마련이죠. 5일정도 외래로 항암주사를 맞게되면, 항상 이동이 문제였어요. 나중엔 병원옆 여관에서 잠을 자면서 주사를 맞았죠. 가끔 그 여관을 지날 때마다 머쓱해져요! 아마 그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치료받으러 다녔을 거예요.

KCLF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계셨다는데, 규희씨가 입원했을 때 간호는 어떻게 하셨나요?

규희 제가 입원을 하면 간호는 아버지가 대부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2-3살 때부터 보험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셨는지, 어머니 계속 해서 보험일을 해오셨어요. 주차장을 운영하셨던 아버지가 2년동안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셨는데.....



이규희

1977년 9월 23일 생
 1992년 12월 폐암 판정
 1995년 6월 치료종료
 1998년 2월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 2학년 재학중
 본 기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중

그런데, 치료종결을 일주일 앞두고 길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제 치료종결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다음, 전 또한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종양제거부분에 염증이 생겨서였어요. 4달 가깝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었죠. 그 땐, 거의 저 혼자였어요.

KCLF 치료받을 당시, 규희씨는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규희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폐암진단을 받았고, 중학교 진학을 망설이다 결국 진학으로 결정했지요.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근교에서는 가장 커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같은 중학교로 진학했어요. 초등학교 때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 덕택에 중학교때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2학년까지 마쳤는데, 3학년 때, 염증제거 수술을 하는 바람에 출석일수가 모자라 3학년을 한해 더 다녀야 했어요.

KCLF 소아암어린이와 부모님들께 한마디.....

규희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 종교를 가져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교든 기독교든 믿음을 가지면 어머니들의 불안한 마음에 안정이 올거예요. 어머니들의 안정은 곧 아이들의 안정이거든요. 실제로, 어머니와 전 아프면서부터 천주교에 다녔어요. 많은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같은 또

래친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취미를 갖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은 아이들의 특기를 키워줄 수도 있고, 같은 또래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 좋을 것 같아요.

KCLF 앞으로의 계획은?

규희 2학년 2학기때 학과를 결정하게 되요. 전 행정학과를 지망할 예정입니다. 행정고시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효도해야죠! 저희 어머니 나이가 벌써 56세예요. 아직까지도 제 학비와 생활비때문에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계세요. 정말 무던하신 분이시죠. 용돈이라도 제손으로 마련하려고 중학생 한 명에게 과외지도를 하는데,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네요.

제가 치료받을 때, 치료를 마친 영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웅"이 되었네요. 혹시나 저를 보고 있는 아이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영웅을 꿈꾸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좌우명이요? 예전 힘들 때 마음에 위안을 준 '십대들의 쪽지'에 글귀가 아직도 제 좌우명이예요. '오늘 의미없이 보내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다.' 영웅을 꿈꾸는 많은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파이팅 !



[선한 이웃]

사막을 건너는 법



소래섭
사무보조 자원봉사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재학중)

1. 나는 지쳐있었다. 온몸이 녹아 내릴 것 같던 7월말, 그 사람과 세 번째 이별을 했다. 그를 위해서 세상을 잊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를 잃고 나서, 나는 세상을 잃었다. 들어가 숨쉴만한 손톱만큼의 공간도 보이지 않았으며, 철저히 외면 당한 느낌 속에 담배와 원망만이 늘었다. 무더위에도 가슴이 시려서 뜨거운 국물이라도 들이켜고 싶은 기분이었다. 누구라도 따뜻하게 말을 걸어준다면, 그리하여 다시 세상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혜화동, 제일생명의 집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사막과 빼만 남은 낙타의 시체와 오아시스를 생각했다. 벌써 9월이었다.
2.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사무실에 들어서 후원자에게 보낼 지로 용지를 적고 봉투에 접어 넣고, 적당히 물풀을 발라 봉한 다음, 우체국까지 가서 '요금별납' 도장을 찍어 넘기는 것이 내게 배정된 몫이었다. 어쩌면 지루한 일이었다. 과장님은 내가 따분해 하지나 않을까 걱정이셨지만, 나는 오히려 즐거웠다. 군에 있는 동안에도 비슷한 일을 많이 했었다. 얼마나 지겨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5시나 6시쯤 마치고 나설 때면 어깨가 빠근하면서도 한 주일의 피로가 말끔해졌다. 천사백운동을 위한 지하철 홍보물 전시를 거들 때도 그랬고, 지역조사를 위해 종로구청을 세 번이나 들락거리면서도 즐겁기만 했다. 천사백운동을 신청하는 사람들로 전화가 불통되기까지 했을 때는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보내는 작지만 큰 정성이라니... 나의 조그만 도움에 고마워하는 후원회 식구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나는 감히 지루하단 생각도 할 수 없었다.
3. 항상 점잖으시고 당신을 '구닥다리' 라고 부르시는 데다 새치가 많아서 꽤 장년인줄로 알았던 국장님은 아직도 팔팔한 중년이다. 오늘도 후원자를 모으느라 동분서주 출장중. 2월 15일에 웨딩 마치

- 를 올리는 김과장님, 무척 낭만적이었던 연애담의 주인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할 때 느껴지는 침착함. 나는 약간의 카리스마까지 느낀다. 김간사님을 생각만 하면 즐거워진다. 그 말투와 표정은 언제까지든 잊지 못할 것이다. 노래실력도 수준급이라고. 정간사님, 이렇게 따뜻하고 진지한 회보를 만드는 사람, 자랑도 수준급인 멋쟁이. 정선생님, 약간 깽쟁이 같지만 정이 많아 보이는, 사무실의 온도를 2, 3도쯤 올려놓는 사람. 그리고 새로 오신 최선생님, 김지호를 닮았다는 귀엽고 야무진 아가씨. 이 여섯 사람이 후원회 사무실의 식구들이다. 다들 아이들을 끔찍이도 사랑한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친구들에게 그랬다. '착한 사람들은 서로 닮는 모양'이라고... 천사는 가까운 곳에 산다.
4. '일' 이 아니라 '봉사' 라서 즐거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후원회 식구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조그만 일을 하고서도 우쭐해하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그들에게는 일이 곧 봉사고 봉사가 곧 일이다. 그래서 즐겁고 신명이 난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 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봉사' 라고 생각한다면, 요즘처럼 사회가 휘청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즐겁게 일하고, 웃으며 마주칠 수 있을 것이다. 남을 돕는 일은 특권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 6개월이 다 지난 이쯤에야 깨달아 간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볼 일이다.
 5. 백혈병을 앓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 했다. 그러나 혜화동의 작은 사무실 안에도 부모님의 사랑, 아이들의 꿈,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은 넘쳐나고 있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정든 후원회 식구들과도 이별이다. 하지만 나는 즐겁게 이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사막이 아니기 때문이다. 느리지만 쉼 없는 낙타가 있는 한.



[푸른우리마을 소식]

백혈병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우리들 가슴엔 사랑을 제6회 백혈병어린이 완치잔치

백혈병어린이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5시 연강홀(종로5가 연강빌딩)에서 '제6회 백혈병어린이 완치잔치'를 가졌다.

여섯 번째를 맞는 완치잔치는 한해동안 백혈병·소아암 치료를 마친 어린이들을 축하하고, 치료중인 어린이들에게 완치의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올해 치료가 종결된 완치환아 50가족과 치료중인 환아 20가족이 참석했으며, 보이지 않은 곳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의료진, 인기 연예인 김진표, 유비스, OB베어스 선수단 등 500여명이 참석, 감동의 자리를 이루었다. 한편 레고코리아(사장 이윤하)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축하하며, 1억 원 상당의 레고물품을 기증하였다.



98년 소책자발간 소식 제2권 '자녀가 암에 걸렸을 때' 3월초 발간

후원회에서는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치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책자발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97년 '소아백혈병의 치료' 발간을 시작으로, 98년에는 총 3권의 소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3월초에 발간되는 '당신의 아이가 암에 걸렸을 때'는 초기진단 환아의 부모들이 겪게 되는 힘든 감정에 대한 대처와 도움 구하기 등의 내용이 사례와 함께 설명되어 있다. 소책자 배포는 후원회에 가입한 부모에 한하며, 무료 배포된다. (문의: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 ☎766-7671)

두산그룹 신년음악회 초청

두산그룹(회장 박용오)은 2월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그룹사 임직원과 백혈병어린이 40여 가족을 초청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98 신년음악회(지휘\금난새, 오케스트라\수원시립교향악단)]를 열

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음악회는 백혈병을 이긴 어린이들과 새봄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마련되었으며, 당일 모금함을 설치, 후원금 9,106,600원을 본 후원회에 전달하였다.

여름다운 세상만들기

- 제일생명(주) 홍보팀(팀장 김재홍)은 지난 연말 제일생명의 집을 방문,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환아의 집 입실환아를 위로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장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제일생명(주) 노동조합(노조위원장 윤경화)은 연말을 맞아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후원회에 전달하였다.
- 보석디자이너 홍성민씨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의 '사랑의 브로치'를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 200만원을 현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중인 김종민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
- 매년말마다 불우 백혈병어린이들을 찾아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재보험 여직원회(회장 이현주)는 95, 96년에 이어 97년에도 불우 환아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사랑의 메모지 꽃이 배포, 모금 후원금 200만원을 조병철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
- 전주 전일초등학교 2-4반 자모회에서는 같은 반 박성수 어린이의 소아암 완치를 축하하며, 다른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모회비를 후원회에 보내왔다.
- 삼성종합기술원은 지난 2월 17일 본원 교육장에서 154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고 헌혈증서를 후원회에 전달하였다.
- 삼성에스원은 이웃사랑의 고귀한 정신과 혈액수입에 따른 외화절감운동 차원에서 지난 2월 2일부터 한달 동안 대대적인 헌혈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8개 전역 104개 사업장에서 실시된 헌혈운동에는 1,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삼성에스원 사회공헌팀은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의 많은 헌혈수요에 보탬이 되고자 본 후원회로 109장의 헌혈증서를 전달하였다.



변지연 손영화 손한성 송정아 신상구 신은진 안기영 안동현 안철기
 양승윤 양한승 오한수 원미향 윤희정 이경희 이권수 이명성 이세창
 이영길 이중현 이지영 이해심 이춘호-마택무 임기중 장인숙 정덕자
 정동훈 정재철 조민자 조영형 차용승 최경수 최연준 최은경 최희순
 허덕룡 허효선

서울

은행 시스템상(통장정리시, 자동이체자의 계좌번호가 찍힘) 후원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신한

강치운 기정숙 김강수 김명란 김부영 김양남 김영환 김종록 김형호
 남일기획 박순선 박영숙 박진순 배정숙 배현찬 신현숙 예현숙
 오승교 오신영 유희정 윤나호 윤수정 윤여진 윤찬하 이경희 이동엽
 이영희 이운숙 이정애 이창권 이해숙 이홍상 장장식 장혜섭 전해정
 정은수 정준수 조두현 최재규 황진하

외환

강수미 강유정 강재희 고은비 김덕래 김성미 김수남 김인자 김재상
 김정화 김주현 김진섭 김한욱 김현아 김효태 김희영 민묘숙 박대중
 박지환 박철락 박현남 반일성 배영덕 배준석 송원직 송은경 신병섭
 안병찬 왕미혜 이금실 이미영 이분규 이영섭 이재훈 이정현 이현석
 이해경 장경섭 장은화 전춘호 정요한 정종문 조유진 차순일 최금숙
 최미란 최병훈 한창수

제일

강동기 광송자 김경웅 김선혜 김순진 김영석 김영자 김용식 김재숙
 김지윤 김필수 김필수 남옥실 모종운 문진숙 박경희 박래용 박숙경
 배매동 성락춘 신경순 오종승 오종인 유동환 윤상서 이동현 이민주
 이봉근 이승연 이윤정 이인순 인영희 임재우 장인수 전광선 최경혜

조흥

강난영 강성화 강현규 구영기 권영순 권혁신 김교선 김동원 김동진
 김문영 김성자 김순덕 김영숙 김인식 김주한 김지양 김해나 김현순
 김혜선 김홍국 문영식 문종완 문희숙 박경희 박계원 박광신 박기철
 박미진 박상두 박은지 박정숙 박정원 박찬수 방주영 백숙자 서운정
 성정경 손미애 손승현 손은유 송경희 신경만 안수영 안호섭 양병규
 양승희 양은미 오동익 오애심 오정은 오준표 오태영 이상하 원영호
 유연섭 유장근 유제국 윤종삼 이 미 이경남 이동원 이명초 이범수
 이상건 이송자 이승택 이은영 이정숙 이정희 이지영 이현영 이홍도
 이희순 임미향 임현성 임형균 장성호 정범용 정용덕 정지영 정진용
 정창호 정태룡 조병국 조용호 조정아 조현봉 주 란 최기자 최동명

최영희 한금주 한하연 함연자 항해주 허인녕

주백

강미라 강민백 강종근 광민정 광현애 김기곤 김대권 김대훈 김대희
 김덕용 김동근 김락석 김묘옥 김미경 김미숙 김미옥 김민덕 김병수
 김상중 김시용 김애경 김양섭 김연숙 김영식 김용환 김은실 김정숙
 김준순 김준하 김진순 김천식 김춘희 김학빈 리익균 류금숙 명근우
 문정식 박길식 박미정 박보미 박수환 박순자 박순자 박연암 박은정
 박진주 박한나 박홍주 박희정 백상륜 백정현 손문채 송기욱 송기환
 송숙희 신명식 양범석 염창훈 우수규 이광희 이귀례 이동원 이무균
 이미옥 이민선 이선진 이신구 이월하 이정숙 이형석 이효재 임대욱
 임태수 장경옥 장미랑 장성현 장은주 전창주 정남홍 정명숙 정성훈
 정인수 정재현 정종금 정찬문 정찬문 조강준 조광현 조미경 주지나
 진경희 진명선 진미영 최정원 최홍식 하성애 허정웅 황영심 황인섭
 황희문

하나

곽경숙 김영지 박정은 엄운정 연혜정 이상애 이순욱 최성희 허혜연

한일

강상석 강신찬 강준석 구택열 권 옥 권미경 권순달 김기황 김길호
 김다은 김두환 김명래 김명수 김명자 김문길 김병렬 김병일 김보경
 김송규 김영태 김은미 김재철 김정라 김종연 김주석 김현숙 김희경
 나유순 류남용 목법상 민영진 박강민 박선희 박성범 박양현 박유정
 박인선 박현정 백복숙 서경미 서범석 서정기 송영걸 신금주 신오희
 신화균 안배수 오성수 우원정 우은정 이강림 이경배 이경숙 이길호
 이동욱 이문선 이웅재 이재근 이재남 이재상 이재형 이종갑 이종은
 이주영 임만순 전경선 정영섭 정왕진 정운중 정창근 정항식 조난주
 조미향 조성표 조종명 조판제 주미창 최기성 최길화 최미경 최연식
 최재승 한나미 한미선 한민원 한정호 홍서정 홍용태

(천사백운동에서 만난 천사)

- 얼마전에 소아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은 종국이는 '다 나오면, 다른 아픈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엄마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작은 실천으로 천사백운동에 참가했습니다. 한달 용돈을 모아 2,800원을 천사백계좌에 송금하는 종국이는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전에 기도합니다. '모든 아픈 아이들이 저처럼 건강을 찾아서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 웨이리 마트 과천점(유지수)에서는 천사백 운동 저금통을 만들어 손님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으고 있다. 2월 한달동안 손님들이 모은 동전 46,870원이 제일은행 천사백 계좌로 입금되었다.

온라인, 지로용지의 경우, 매달 납부인의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회보에 실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사랑모음터

새로 가입한 한뜻후원자(97. 12/20~98. 2/20)
LG화재(채경예) 구흥욱 김은숙 김형자 이원복 이창희

사랑의 연명증서.(97. 12/15~98. 2/20)

곽상신(4)	권지성(1)	김영준(4)	명재원(1)	방현경(1)
삼성에스원(109)	삼성카드(206)	삼성종합기술원(114)	송상민(7)	한국심장재단(7)
연천체육관장모임(27)		왕선정(1)	이경식(46)	이미영(2)
이영종(6)	이종수(3)	인은기(4)	인하대학생(9)	정영석(1)
정호원(8)	중외제약(272)	천강재(4)	하계동 성당(7)	

특별후원금

김동현 340,000	김덕현 200,000	채종훈 200,000	최양순 3,000,000
삼성종합기술원(지정후원금) 2,000,000		크라운제과 101,600	

면집실에서

후원회에서는 회보제작 및 발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격월로 발행하던 회보를 계간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회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한뜻후원자: 정서지원사업과 소아암관련 책자 발간 사업 후원자
(월회원/지로 또는 자동이체/후원금액 제한없음)
- 천사백후원자: 불우 소아암환아 수술비 지원 후원자
(월회원/자동이체/ 1구좌 1,400원)
- ※ 회원신청 및 문의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02. 766-7671)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 봄호는 두산사우 신년음악회 후원금과
김덕현·채종훈 변호사 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인/이순형 편집인/안종남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사회단체등록 서울특별시약
제208호)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3 팩스 : 766-
7674 제일생명의 집(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옆 766-7671) 푸른우리마을(경기도 연천
0355-34-998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보관용